

창표

월간건설신문

Email : khong3000@gmail.com Tel : 021-3002-9090
광고문의 : 0821-1122-8827, 0815-1066-5868



VOL. **103**
2025 / 07



재인도네시아 한국 건설협의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ONSTRUCTION IN INDONESIA

인도네시아 정부, 국가 기반 시설 건설 민간 참여 전면 개방

프라보워 대통령, “인허가 간소화 및 정부 공동투자로 안정적 사업 환경 조성”



▲프라보워 대통령, 국가 기반 시설 건설에 민간 참여 전면 개방 발표. 2025.6.12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국가 핵심 과제인 기반 시설(인프라) 건설에 국내외 민간 부문의 참여를 전면적으로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산을 공동 투자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6월 12일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2025 국제 인프라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 기반 시설 건설에 대한 민간 부

문의 참여를 활짝 열 것”이라며, “국내외 모든 민간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인프라 발전에 최대한 참여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가 발전에 필수적인 인프라 프로젝트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의 자본과 기술, 경험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정책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건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정부가 안정성을 보장하며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프로젝트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장애물을 해소하고 행정 지원을 가속화할 ‘원스톱 서비스 센터’ 설립 구상도 환영하며, “모든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며, 대규모 건설 계획이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전담 기구의 설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프라보워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 참여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꾸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효율성 증대를 통해 확보된 국가 예비 예산을 이제 민간 부문과의 공동 투자 자본으로 직접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과거처럼 명목상의 지분 참여가 아닌, 정부가 실질적

으로 자금을 투입해 민간 투자자와 함께 위험을 분담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대통령은 “민간이나 해외 투자자와 협력할 때, 이제 정부가 일정 비율의 자금을 직접 투입해 함께할 것”이라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더 큰 확신과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이번 발표는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인프라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관련 정책의 구체적인 이행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인포스트]

아세안 대표부, 한-아세안 교통협력로드맵 2026-2030 수립을 위한 인프라 사업발굴 추진

아세안 인프라담당관 회의(AIOM),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

주아세안 대표부(대사 이상근)는 주필리핀 대사관(대사 이상화)과 협력하여 작년에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한국과 아세안 간 인프라 연계성 강화를 통해 우리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의 아세안 인프라 담당관회의(ASEAN Infrastructure Officials Meeting)를 6월 25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아세안대표부는 작년 12월 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1회 한-아세안 인프라 담당관 회의를 개최하고 한-아세안 교통협력로드맵 2026-2030 수립에 착수



▲아세안 인프라담당관 회의(사진=주아세안 대표부)

한 바 있다.

금번 2차 회의에서는 한-아세안 교통협력 로드맵 2026-2030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취합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진

행됐다.

동 회의에는 외교부 동남아 1과,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을 비롯하여 10개 아세안

회원국 주재 대사관의 인프라 업무담당관들이 참석하였으며, 이 밖에도 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UN ESCAP, 아시아 개발은행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내년 필리핀의 아세안 의장국 수임을 앞두고 역내 인프라 황금시장으로 불리고 있는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금번 2차 회의는 본부와 재외공관 그리고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인프라 협력 제고를 위한 시너지를 모색하는 시의적절한 기회가 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외교부 본부는 한-아세안 행동계획(POA: Plan of Action) 2026-2030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

였고, 아세안 대표부는 한-아세안 교통협력로드맵 2026-2030 추진방향을, 10개 아세안 회원국 인프라 담당관들은 교통협력로드맵에 반영할 수 있는 주재국 인프라 프로젝트 등을 공유했다.

특히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해외건설사업 법률 타당성 조사의 개요 및 필요요청을, 아시아 개발은행은 ADB 역할과 전망, 그리고 ADB의 인도네시아 친환경 및 서민주택금융 지원사업을 소개하여 향후 한-아세안 인프라 프로젝트를 발굴하는데 있어 외교부와 유관기관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주아세안 대표부/자카르타경제신문]

HKI
PT. HANJIN
KONSTRUKSI INDONESIA

HIJ
PT. HANJIN
INDONESIA JAYA

고객의 미래를 함께 건설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에서 한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 건설 / 토목



www.hanjinpower.com

Jl. Raya Serang - Jakarta KM. 80, Kel. Kaserangan, Kec. Ciruas - Serang, Banten

Tel : (0254) 402323 6 Fax : (0254) 402327

Email : pthanjin@hanjinind.co.id

www.hanjinpower.com

2026년까지 ‘과적 트럭’ 전면 금지 목표... 디지털 단속 강화

교통안전 증진 및 도로 파손 방지 위한 국가 전략...
부처 간 협력과 데이터 통합 강조



▲과대과적 (Over Dimension and Over Loading, 이하 ODOL) 트럭

인도네시아 정부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과대적재·과적(Over Dimension and Over Loading, 이하 ODOL) 트럭, 일명 ‘비만 트럭’을 2026년까지 도로에서 완전히 퇴출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과 과적 차량으로 인한 도로 인프라 손상 방지를 위한 국가적 전략이다. 두디 푸르와간디 교통부 장관은 최근 서면 브리핑에서 “과적 ODOL 트럭 단속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대중교통과 화물 운송 시스템 간 데이터 통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화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지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핵심 해결책”이라며 모든 관련 기관의 협력을 촉구했다. 두디 장관은 또한 기술 기반 단속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지방 정부, 경찰, 물류업계를 아우르는 범부처 간 시너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교통 기술 실무 회의(Rakernis)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후속 조치를 전략적으로 논의할 계획

임을 시사했다. 그는 “실무 회의를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개선하고 모든 도로 이용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다른 부처에서도 확인된다. 아구스 하리무르티 유도요노(AHY) 인프라 및 지역개발 조정장관 역시 ‘제로 ODOL’ 정책에 공감하며, “현재 범부처 및 기관 간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2026년에는 규정이 전면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5월 자카르타에서 열린 조정 회의 후 “단순히 한두 번의 회의로 끝날 사안이 아니며, 모든 당사자의 온전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제로 ODOL 정책이 단순한 규제나 단속에 그치지 않고, 국내 운송 및 물류 산업 환경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앙 및 지방의 다양한 물류업체와 긴밀히 협력해 산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제로 ODOL 정책은 △교통사고율 감소 △도로 인프라의 기술적 수명 연장 △더 안전하고 질서 있는 물류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인도네시아 화물 운송 서비스의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인포스트]

재인도네시아 한국건설협의회 ... 2025년 세 번째 워크숍 열려



지난 4일 재인도네시아 한국건설협의회(회장:황의상)는 2025년 세 번째 워크숍을 땅그랑소재 임페리얼CC에서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정규 회원사만의 참석으로 진행했으며 회장단 및 많은 회원사가 참여해 건설산업의 현안과 미래에 대한 토론을 함께하는 자리였다. 이날 인사말에서 황의상회장은 우리 재인니 한국건설협회회가 더욱 더 활성화 되기를 바란

다고 했으며 지난 IMF의 위기를 잘 극복했지만 지금도 IMF 못지않은 위기로 우리 회원사 상호간 상생과 협력으로 잘 이겨낼 것이라 본다고 했다 그리고 탈 한국업체 수주를 통해 엄청난 인도네시아 시장 진입이 필수적이라고 했으며 함께 뭉쳐 인도네시아 시장을 뚫어보자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LPGA김태경 프로의 특별초청으로 행사

의 분위기와 품격을 한껏 올렸고 F1 성예식대표는 인생은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했으며 인생은 건설이라는 슬로건으로 우리 건설인들에게 큰 힘을 주었다. 재인도네시아 한국건설협회의회는 어려울수록 힘을 모으는 지혜와 고난과 난관을 함께 헤쳐 나갈 것을 기대한다. [편집국]

롯데장학재단, 인도네시아 대학생에 장학금... 학습물품 지원도, 인도네시아 대학 10곳에서 장학생 선발

롯데장학재단이 인도네시아 대학생에게 장학금과 학습물품 등을 전달하며 해외 사업 보폭을 넓혔다. 4일 롯데장학재단은 지난 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롯데몰 자카르타 ‘Ice Palace’에서 ‘신격호 롯데 글로벌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인도네시아 현지 성적 우수 및 저소득층 대학생 50명에게 총 3,33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상반기 신격호 롯데 글로벌 장학금은 인도네시아 내 10개 대학에서 선발된 학생들에게 1인당 450달러씩 지급되며, 전체 지원 규모는 총 22,500달러, 한화



▲사진 제공=롯데장학재단

약 3,330만원에 달한다.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대한민국도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다른 나라의 도움 덕분에 지금은 선진국이 될 수 있었기에 이제는 그 도움을 다시 돌려드려야 할 때”라며 “국경을 넘어 이제는 우리가 하나라는 마음으로 같이 성장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장학금이 국경을 넘어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나눔의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롯데장학재단은 다음 날인 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역에 위치한 SD Triwibawa 초등학교에서 ‘신격호 롯데 인도네시아 초등학교 물품 전달식’을 열고, 자카르타 내 7개 초등학교에 총 2,350만원 상당의 학습물품을 지원했다. 이번 지원을 통해 화이트보드와 책상·의자 세트 등 교내 노후화된 학습 기자재가 교체된다.

머니투데이

www.f1logix.id

글로벌 물류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다!

LEADING LOGISTIC PROVIDER

4PL

항공, 해상운송

내륙운송

통관대행

물류 컨설팅

물류 OS

W&D 사업

Wisma Korindo 9th Floor.

Jl. MT. Haryono Kav.62

Jakarta, 12780, Indonesia

TEL. : +62-859-3945-2622

Fax : +62-21-797-6015

E-mail : kor@f1-logix.com

연 7000만 톤 넘는 인도네시아 쓰레기, 삼성E&A와 쓰레기 에너지화 기술 협력

노천에 쌓는 쓰레기 줄이고 친환경 인프라 키우려 정부와 민간 힘 모아



▲아구스 하리무르티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인프라지역개발조정부 장관의 발표 모습. 사진=데텍파이낸스

인도네시아에서 해마다 7000만 톤 넘는 쓰레기가 나오지만, 여전히 많은 쓰레기가 노천에 쌓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도네시아 정부와 한국 건설사 삼성E&A가 만나 쓰레기를 에너지로 바꾸는 기술 협력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 소식은 인도네시아 경제·인프라 전문 매체 데텍파이낸스(detikFinance)가 지난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지난 1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국제인프라컨퍼런스(IC) 2025에서 인도네시아 인프라 및 지역개발 조정장관 아구스 하리무르티 유도요노(AHY)는 삼성E&A 대표진과 만나 쓰레기 처리와 쓰레기 에너지화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삼성E&A는 세계적으로 친환경 인프라와 전략적 건설 사업을 이끌고 있다. AHY 장관은 이날 삼성E&A 대표진과 만나 “인도네시아는 해마다 7000만 톤 넘는 쓰레기가 나오는데, 아직도 많은 쓰레기가 노천에 쌓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쓰레기를 노천에 쌓아두면 환경이 오염되고, 국민 건강과 안전에도 큰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AHY 장관은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치면 더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인프라를 빨리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 폐기물 발생량 30% 감축, 처리량 70% 확대, 해양쓰레기 70%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삼성E&A는 인도네시아에 쓰레기를 에너지로 바꾸는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쓰레기를 태우거나 분해해 전기와 열에너지로 바꾸는

방식이 환경 오염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를 얻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E&A는 국내외에서 친환경 인프라 사업을 여러 번 성공적으로 마쳤다.

◇ 인도네시아 쓰레기 처리 현황과 난관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해마다 7000만 톤 넘는 쓰레기를 배출한다. 이 중 상당수는 아직도 노천에 쌓아두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AHY 장관은 “노천에 쓰레기를 쌓아두는 것은 환경 문제를 넘어 사회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쓰레기 처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쓰레기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평가

가 나온다. 삼성E&A처럼 세계적 인프라 기업의 기술과 경험이 인도네시아의 쓰레기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삼성E&A, 인도네시아 진출 가속화와 기술 협력
삼성E&A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입지를 더 굳힐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삼성E&A는 쓰레기를 에너지로 바꾸는 플랜트 등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와도 맞닿아 있다. 삼성E&A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은 기술을 들여오는데 그치지 않고, 현지 환경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삼성E&A가 인도네시아에서 쓰레기를 에너지로 바꾸는 플랜트 건설과 운영, 유지관

리까지 전 과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협력 논의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쓰레기 문제 해결에 나서고, 삼성E&A의 기술력이 더해진 사례로, 앞으로 인도네시아 내 친환경 인프라 확대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삼성E&A와의 협력을 통해 노천에 쓰레기를 쌓아두는 문제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보 등 환경·에너지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삼성E&A는 인도네시아 진출을 통해 아시아 시장에서 입지를 더 굳힐 것으로 보이며, 업계에서는 이번 협력이 앞으로 동남아시아 등 신흥시장에서 친환경 인프라 사업 확대에 중요한 뜻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이코노믹

바다 위에서 전력 생산... HD현대 부유식 SMR, 美서 설계 승인

HD현대가 소형모듈원자로(SMR·small modular reactor)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원자력을 원료로 쓰는 SMR 추진선에 이어 바다 위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부유식 SMR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1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미국 선급협회(ABS)는 HD현대중공업과 HD한국조선해양이 설계한 부유식 SMR 모듈화에 대해 개념 승인(AIP·Approval In Principle)을 부여했다. AIP는 특정 설계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 기술적 결함이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HD현대와 HD한국조선해양은 바다에 부유식



▲HD한국조선해양이 공개한 1만 5000TEU급 원자력(SMR) 추진 컨테이너선 설계모델./HD한국조선해양 제공

SMR를 띄우고 해상에서 전력을 생산해 인근 지역에 공급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SMR은 원자로 부품을 공장에서 모듈로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도록 만든 전기 출력 300MW(메가와트) 이하의 원자로다. 부유식 SMR은 바다에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것과

같다. 육지에 원전을 짓는 것과 비교하면 부지 선정이 자유로워 섬·오지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주민 거부감도 적다.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데이터센터는 냉각을 위해 바다를 활용하는 방안이 연구 중인데, 근처에 부유식 SMR을 지으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게 가능하다. HD현대와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월에는 SMR 기술을 탑재한 1만 5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설계 모델로 AIP를 받았다. 기존 벙커C유 대신 원자력을 원료로 움직이는 선박이다. 원료 효율이 높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

다. HD현대와 HD한국조선해양은 SMR 기술을 선박에 적용하기 위해 협력 분야를 넓히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2022년에 3000만달러(약 415억원)를 투자한 미국 SMR 기업 테라파워에 원자로 주기를 공급할 예정이다. 테라파워는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인 빌 게이츠가 2008년 설립한 SMR 개발사로, 소듐냉각고속로(SFR)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국제 원자력 기구(IAEA)는 2050년까지 세계적으로 1000기 이상의 SMR이 건설되면서 시장 규모가 40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비즈

한가지라도 흔들리면 위험합니다

인도네시아 건설환경에
최적화 되어있는 **신화**는
고객의 마음에 신뢰를 심어주는
건설기업입니다.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성공전략을
신화가 함께 하겠습니다.

Electrical, Mechanical, Construction,
Fire Fighting Total Solution,
Factory Control Consultant

PT. SHINHWA TECHNO PLANT
Kawasan Industri Jababeka II
Jl. Industry Selatan 8 Blok EE-6P Cikarang,
Bekasi 17530 Indonesia
Tlp. 021-8984-1283 Fax. 021-8984-1284
Email. shinhwatechno0408@gmail.com

2025 한-아세안 연계성 포럼' 자카르타서 개최... ACSP 이행 위한 협력 방안 모색



주아세안 대한민국대표부는 6월 17일(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2025 한-아세안 연계성 포럼(ASEAN-ROK Connectivity Forum)'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이 대화상대국 중 최초로 개최한 행사로, 지난 5월 26일 제46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 및 '아세안 연계성 전략 계획(ASEAN Connectivity Strategic Plan, ACSP)'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아세안 사무국, 현지 외교단, 민간 기업 및 한-아세안 연계성 전문가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장근 대사 “한-아세안 연계성 협력,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속 지속 확대”

이장근 주아세안대한민국대사는 개회사에서 “ACSP 채택 직후 이번 포럼을 시의적절하게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아세안의 장기 전략 이행을 위한 연계성 로드맵 마련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또한 “한국은 지난 10년간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2025’의 이행을 인프라, 디지털,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CSP(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하에 아세안과의 연계성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카오 김 후은(Kao Kim Hourm) 아세안 사무총장은 “한국은 그간 아세안의 연계성 강화 및 지역 격차 해소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ACSP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계성, 공급망 협력 집중 논의... 실질 협력 가능성 모색
포럼은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Yose Rizal Damuri CSIS 인도네시아 소장의 진행 아래, Lim Chze Cheen 아세안사무국 연계성 국장이 MPAC 2025 성과 및 새로운 ACSP 전략을 발표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 이재현 아산연구소 수석연구위원, Phebean Belle A. Ramos-Lacuna 필리핀 민간 파트너십 센터 국장이 참석해 6개 전략 분야 가운데 ▲지속가능한 인프라 ▲디지털 혁신 ▲스마트 도시개발 등 한국과 아세안 간 실질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갔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고영경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박성일 KIEP 센터장이 공급망 연계성 협력 방안을 발표했고, 이어 안종천 LX 인터내셔널 팀장, Rifki Weno ABAC 사무국장, Lily Yan Ing ERIA 선임경제학자가 패널로 참여해 무역 환경 변화 속 한국-아세안 공급망 협력의 도전 과제 및 해법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했다.

“연계성 협력,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의 핵심 축”

이번 포럼은 아세안의 새 전략 로드맵인 ACSP를 기반으로 한-아세안 간 연계성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다수의 아세안 및 한국 측 관계자들이 활발히 참여함으로써 연계성 분야 협력 확대에 대한 상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ACSP는 향후 10년간 아세안의 연계성 강화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 문서로, 지속가능한 인프라, 디지털 혁신, 스마트 도시 개발 등 6개 핵심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카다록
도서출판
브로슈어
스티커
라벨
카렌다
행택
기타

0821-1122-8827
khong3000@gmail.com

다난타라, 국영기업 자본지원 역할 본격화

국가직접지원(PMN) 없이 배당 수익 재투자...
투명성 우려도 제기

인도네시아의 새 국부펀드 다난타라(Danantara)가 인도네시아 국유기업들에 대한 자본 지원을 본격적으로 담당하면서, 기존의 국가지원 방식인 출자금(Penyertaan Modal Negara 또는 PMN)이 대체될 전망이다. 이번 변화는 재정 부담 완화를 기대케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치적 개입과 투명성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다난타라 최고운영책임자(COO) 도니 오스카리아는 “이제 국회나 재무부를 통한 출자금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며 “국가가 회수하던 배당금을 다난타라가 통합·재투자함으로써 국유기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22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밝혔다.

다난타라는 지난 2월 설립돼 현재 844개 국유기업을 관할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약 70억 달러 규모의 배당 수익을 확보해 다른 국영기업 지원 및 고수익 국내 투자 프로젝트에 활용할 계획이다. 도니는 “기존에는 국유기업이 자본을 요청할 경우, PMN을 제출하고 국회의 승인을 거쳐야 했고, 필요한 규모가 반영되지 않아 성장을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인도파르마(Indofarma)의 경우, “1조 루피아를 요청했어도 전액이 승인되는 보장이 없어 구조조정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반면, 다난타라는 사업계획과 산업전망에 따라 자본을 투입하며 “

복수의 심사단계와 전문적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감시체계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제법정책연구소(CELIOS)의 비마 유디스피라는 “국가가 배당금을 회수하지 않는다면 PMN 지원도 중단되는 것이 타당하지만, 다난타라가 국회의 통제를 우회하게 되면 정치적 이해관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센터(CORE)의 유습 렌디 마닐렛 연구원은 “국회나 재정감사원(BPK)이 관여하지 않으면 다난타라의 투자 결정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다난타라가 민간기금이 아닌 공공기금을 다루는 만큼, 분기·연간 보고서, 감사보고서, 대중 접근이 가능한 정보 공개 시스템과 독립적 감시기구의 정기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Danantara란?

설립: 2025년 2월

형태: 국영자산기금(국유기업 배당 통합·관리·재투자)

관할 대상: 844개 국영기업

목표: 국가 재정 부담 완화, 국유기업 경쟁력 강화, 양질의 국내 일자리 창출

핵심 역할: 배당 수익 재투자, 자본지원 심사 및 집행

우려 요인: 국회/감사원 통제 미흡, 정치적 가능성, 공공임무 국유기업의 배제

LS-AG Cable Indonesia

www.lscns.com
www.lisag.co.id

대한민국 1위 전선회사 LS전선, 인도네시아에서도 자랑스런 1위입니다

저압케이블/Building 케이블

산업용 케이블

Overhead 케이블

Busduct

Karawang 공장

Artha Industrial Hill
Blok E Kav 20-21, Wanajaya,
Telukjambe Barat, Karawang
Jawa Barat 41361, Indonesia
Tel : 021 3973 3988

Jakarta 영업소

Revenue Tower
Jl. Jend. Sudirman kav 52-52 No 8
Senayan, Kebayora Baru,
Jakarta Selatan, DKI Jakarta 12190
Tel : 021 3973 3988

한국인 상담

Tel : 0821 2472 2214
0811 1246 006
+82 10 8349 7749

대리점

Ruko Dalton Extension DLNT 052-053,
Jl. Scientia Boulevard, Gading Serpong,
Curug Sangereng, Kelapa Dua, Tangerang,
Banten, Indonesia 15810
Tel : 0811 8126 7788, 0811 8430 561 (한국인 상담)

인니 정부의 800억 달러 규모 방조제 프로젝트, 재정적 실현 어떻게?

자바섬의 해안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800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방조제를 건설하려는 계획이 재정적으로 실행 불가능하며 정치적, 환경적 책임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24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국영대출기관 만다리 은행의 인프라 분석가인 마마이 수카에시는 인도네시아 연간 국가예산의 거의 절반을 소모하는 이 대규모 프로젝트는 이론적으로는 경제적으로 건전할 수 있지만 정부의 대규모 지원 없이는 재정적으로 실행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마마이는 지난 23일, 거대한 방조제가 장기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유료도로나 항만처럼 직접적이고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은 매립지나 새로 개발된 지역의 토지 가치 상승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초기 개발 비용을 부담하고 지원 부문을 구축해야 민간 자본이 가까이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에 브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부활시킨 이 해안 방어 구조물은 15년 또는 20년 후 자바 북부 해안을 따라 500킬로미터에 걸쳐 건설될 예정이다.

당초 계획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침몰하는 도시 중 하나인 자카르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후 반뜰에서 동부 자바까지 홍수 발생 위험이 높은 해안 지역을 포함하도록 계획이 확장된 것이다.

브라보워 대통령은 이 방조제를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라고 설명하며, 새로운 특별 기관에서 감독하고 올해 공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둥공과대학(ITB)에서 20년 넘게 자카르타의 침하를 연구해온 측지 전문가 헤리 안드레아스는 자카르타, 중부 자바의 스마랑, 동부 자



▲중부 자바 주 드막의 땀볼스로고 마을.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지표면이 낮아지는 현상으로 인해 예전의 경작지와 논이 바닷물에 둘러싸여 도로가 끊기고 마을은 고립됐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바의 수라바야 같은 인구 밀집 지역에는 방조제가 필수적이지만 수방과 인드라마유 같은 인구가 적은 지역에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헤리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자카르타는 매년 1~11cm씩 가라앉고 있으며, 땀볼롱안, 스마랑, 드막과 같은 해안 도시는 과도한 지하수 추출과 일부 지역의 석유 및 가스 개발로 인해 매년 20cm씩 침하하고 있다.

헤리는 “이상적인 해결책이 지하수 추출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항의할 것이고 정부도 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해안 방어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브라보워 정부의 거대한 방조제 메가 프로젝트는 자카르타의 국가수도통합해안개발(NCICD) 및 자카르타 해안방어시스템(JCDS) 계획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이후 발전하여 드막-스마랑 유료 도로와 결합될 수 있다. 이 사업은 해안 방어 및 인프라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중 프로젝트로 최대 50년까지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이전에 제방 위에 주택과 상업 구역을 갖춘 살기 좋은 제방을

건설해 해상 신도시를 조성하자고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며, 이는 내륙 호수에서 새로운 수자원을 확보하고 도시 성장을 위한 토지를 확보할 수 있고, 상업적으로도 더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는 이 프로젝트가 매립 프로젝트로 여겨져 대중의 반발을 살까 경계하며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거대한 방조제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은 2025년 정부 예산 지출 계획인 2,700조 루피아의 48%로 추산되는데, 정부는 재정적 제약이 다가오는 가운데 상업성을 갖추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부담을 분담하기 위해 브라보워 대통령은 자카르타에 필요한 자금의 절반인 연간 5조 루피아를 기부해달라고 요청했고, 공공사업부는 잠재적 투자자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공사업부 도디 항고도 장관은 중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반면, 국내에서는 대부분 부동산 부문에 관심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이 프로젝트는 도로와 같은 핵심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택 이외의 다른 산업 분야에서 투자

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프라 및 지역개발부 아구스 하리무르디 유도요노 장관은 국내외 자본을 결합한 ‘창조적 금융’을 촉구했다.

아구스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는 국가 및 지역 예산 제약에 직면해 있다며,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합하고 민간 자금 조달을 모색하여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 단체들은 거대한 방조제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수십억 달러의 비용만 들 것이라고 이 거대 프로젝트에 대해 여전히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린피스 인도네시아 캠페인 담당자 예니 실비아 시라잇은 거대한 방조제는 환경적, 사회적 측면에서 실패했다며 구조적 문제를 무시한 채 피할 수 없는 재난을 지연시킬 뿐인 ‘잘못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자카르타는 이미 무아라 까랑과 무아라 앙게에서 소규모 방조제를 실험했지만 불과 3~4년 만에 붕괴되어 해당 지역의 조수 범람과 지반 침하를 가속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가 지난 몇 년

동안 반복적으로 거부되었다며, 새로운 일도 아니고 그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실패하면 향후 50년 동안 홍수는 훨씬 더 치명적인 재앙이 될 것이라고 아직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수산정의민중연합(KIARA) 수잔 헤라와띠 사무총장은 환경 피해와 프로젝트 규모에 대한 불투명한 정당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 프로젝트를 강행하면 맹그로브, 해초밭, 산호초가 파괴되어 생물 다양성이 사라지고 자바 북부 해안의 전통 어부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등 해안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합법적으로 준설이 가능한 바다 모래와 같은 자재를 채취하는 해안선과 연안 지역을 모두 황폐화시킬 수 있으며, 하나의 거대한 벽을 위해 두 개의 생태계와 거래하고 있는 셈인데, 그것이 해안을 보호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다.

수잔은 또한 확실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녀는 500킬로미터에 모두 동일한 개입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바다에 울타리를 치고 해양의 정체성을 잃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어장과 연안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과학적 연구 없이 이 거대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서 경제적 논리가 더 깊은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었다.

많은 자본이 유입되고 메가 프로젝트 내에서 경제 활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것이 미래의 정치 자본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지 의심된다는 것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PT. MIRAN METAL INDONESIA

금속 절단, V-컷팅, 절곡 및 기계제작

Steel Door & Frame / Trench & Cover / Gate & Handrail / Ladder



Jl. Raya Serang Km 16, Sukamulya, Cikupa, Tangerang
Tel : 021-5969-691, E-mail : pt.miranmetalindonesia@gmail.com

JTCC

JT Construction Chemicals

고품질 건설에 전념합니다

Injection System
(Polyurethane, Epoxy, Acrylic)

Waterproofing
(Sheet, Polyurethane, Polyure)

Flooring
(Epoxy, Polyurethane, Polyure, Self Leveling)

Grouting
(Cement, Epoxy)

Painting
(Anti-Fire, Interior, Exterior)

Protective Coating
(Chemical, UV-resistance)

Sealant
(MS, PU, Silicone, Polyurea)

Structural Strengthening
(Carbon Fiber, Glass Fiber)

Polyurea & Foam Machine
(PUSMAK)

**지속적인 혜택 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혁신합니다.**

Jl. Swadaya 2 No. 114 RT 002/RW01
Kec. Mustika Jaya, Kel. Mustika Sari, Bekasi, 17157

Telp : (021) 82740458

Website : www.id-jtcc.com

marketing@id-jtcc.com

자카르타, 중앙정부의 방조제 프로젝트 지원키로... 환경단체들은 반발



▲북부자카르타 Taman Wisata Alam Angke Kapuk 맹그로브 숲길(사진=자카르타 경제신문)

지방선거 당시 환경보호 공약을 내놓았던 자카르타 주지사 뿌라모노 아농이 지난주 뿌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요청에 부응해 자카르타 북부 해안 방조제 건설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자 환경단체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16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뿌라모노 주지사는 지난 15일에 열린 자카르타 미래축제에서 자카르타 북부 해안에 전장 19km의 대규모 방조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매년 약 5조 루피아(약 4,100억 원)를 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뿌라보워 대통령은 자카르타 방조제 건설 프로젝트를 앞으로 8년간 진행하면서 연간 약 10억 달러(약 1조4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 밝혔고 자카르타 주정부의 예산이 많으니 관련 비용 일부를 주정부 예산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올해 자카르타의 지방 예산은 91조 3,400억 루피아(약 7조5천억 원)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전까지의 자카르타 주정부 예산은 2024년 약 85조 1천억 루피아(약 7조 루피아), 2023년 약 83조 7천억 루피아(약 6조9천억 원)였다. 자카르타 북부해안의 19km를 포함해 반딴에서 동부자바까지 약 500km에 걸쳐 건설될 이 방조제

는 향후 20년간 최대 800억 달러(약 106조7천억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프로젝트는 해안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만조 홍수와 지반 침하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자카르타 북부 일부 지역은 매년 최대 15cm씩 침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뿌라모노 주지사가 방조제 건설 지원을 결정하자 환경단체들의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들은 주지사의 이번 행보가 자카르타 해안에 대규모 맹그로브(mangrove) 생태계를 우선적으로 개발, 보존하겠다고 한 작년 지방선거 당시의 공약과 상충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린피스 인도네시아 지부의 도시 캠페인 담당자인 제아니 시라잇은 16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혜택을 얻게 될지도 불분명하고 오히려 심각한 환경적 위험을 초래할 것이 분명한 방조제 프로젝트보다 맹그로브 생태계 복원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녀는 정부가 맹그로브 숲을 복원하면서 소규모 제방을 임시로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영구적 기능의 방조제를 비싼 비용을 들여 짓는 것은 자카르타 예산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환경문제와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매년 폭우가 내리지 않아도 만조기가 되면 자카르타 해안 인근지역 마을들이 심각하고도 만성적인 홍수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루작 도시연구 센터(Rujak Center for Urban Studies)의 엘리스 수파누자야 대표는 이미 심각한 침식이 발생한 해안 지역에서는 바다가 아니라 내륙에 제방을 설치하는 것이 홍수방지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그녀는 지반 침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다 한가운데에 제방을 건설하는 것이 과연 시간을 다투는 일이라고 되물었다. 만조홍수 방지를 위한 방조제 건설 아이디어는 1994년부터 나온 것인데 뿌라보워 대통령이 2025-2029 국가중기개발계획(RPJMN)에 대한 대통령령 제12/2025호를 통해 이 대규모 방조제 사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공식 지정한 것이 올해 2월 10일의 일이다. 어업감시단체인 파괴적어업감시단(DFW)이 4월에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6%가 환경 피해와 해안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방조제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조제를 설치하면 맹그로브 숲이 사멸하고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촌에서 출어 활동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방조제를 설치하지 않으면 이미 해안 마을들을 침식한 만조홍수가 자카르타 지반침하에 편승해 더욱 도심을 향해 침식해 들어올 것이므로 도시와 국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들은 모든 지혜와 기술을 모아 최선의 선택을 해야만 한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김재훈의 세무상식

개인 소득세 신고와 주의 사항

개인 납세자(Orang Pribadi)는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최근 들어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SP2DK 발송 및 세무조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세무당국의 세수 부족뿐만 아니라, 세무 목적을 위한 금융정보 접근 권한의 강화와 시스템 기반의 관리체계 고도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인도네시아는 2017년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AEOI)”에 가입하였으며, 2018년부터 이를 시행하기



김재훈 대표

할 수 있다.

상기 요약과 같이 연말기준으로 재산과 채무 내용을 신고하게 되어 있다.

작년말 신고된 순재산액과 금년말 신고된 순재산액의 차이 즉 순 재산 증가액이 소득을 초과할 수는 없기 문에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누락된 재산은 앞에 언급된 시스템에서 찾기 내기 때문에 누락된 재산에 대한 소명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개인 납세자는 금융거래 및 자산 관련 정보가 세무 당국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세무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력 및 경력

- 핀란드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경영학 석사(MBA)
- Certificate Tax Consultant (Konsultan Pajak)
- Brevet A&B, Konsultan Pajak Brevet C from Artha Bhakti)
- 현, 인도네시아 Tax Lawyer (Kuesa Hukum Pengadilan Pajak)
- 현, PT. BNG Consulting 및 PT.
- Kantor Jasa Akuntansi Indonesia 대표
-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세무 자문 위원
- 현, 코참 국제세무관 및 고충 상담 위원회 세무 자문
- 현, 한인포스트 월간건설신문(창조), 월간봉제신문(Koga) 세무칼럼
- 저서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 2016, 2018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보고서 (공저, 2016, Kotra, Kocham)
- TEL : 021 522 2739
- e-mail: kimjhoon@bngconsulting.co.kr

대한민국 노통연관보일러 No.1

인도네시아에서도 그 명성을 이어가겠습니다.

보다높은 레벨의 퍼포먼스를 실현, 노통보일러의 폭넓은 스테이지
“Higher Levels of Performance”



DMXN-Series

- 고성능 저녹스버너 탑재
- Siemens Control 채용
- 2-Damper 전자식 컨트롤로 Air, Gas의 정밀제어를 통한 최적의 연비실현



NOx 40ppm 이하



98%이상



99%이상



비례제어



DMI-Series

- 컴팩트형 미니 노통보일러
- 협소한 공간에 최적의 보일러
- 모든 부대장비가 하나의 플랫폼상에 설치, 배선, 배관이 되어있어 현장 운반 설치가 용이



폭 1,960~2,730mm



98%이상



90%이상



스텝제어

산업용 보일러 외길 54년!
(주) 대열보일러
DAEYEO BOILER CO., LTD.
INDONESIA AGENCY

영업 담당 : 이 광 선 이사

Tel. +62-021-598-0222 / +62-0812-100-77732

E-mail. salesyja@gmail.com / sunny@yusungjaya.com

본사-제조공장(서산 소재) ▶



www.dylboiler.co.kr

KCC, 글로벌 마케팅으로 동남아 시장 공략

베트남 현지 건설사, 설계사, 시공사, 대리점 등 초청 세미나 실시
KCC 브랜드와 도로 제품 인지도, 신뢰도 확대 기대



KCC가 베트남 등 해외 법인의 글로벌 마케팅 활동을 통해 해외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글로벌 응용소재화학기업 KCC(대표 정재훈)는 지난 14일(토)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건설사, 설계사, 시공사, 도로 유통대리점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베트남 현지의 브랜드 인지도 및 신뢰도를 높이고, 관련 기술의 우수성과 제품 경쟁력을 알리기 위해 KCC 하노이법인 주도로 진행됐다.

KCC는 이번 세미나에서 ▲AI 기반 차세대 인캔(IN-CAN) 조색 시스템 ‘KCC Smart 2.0’ ▲국내 최저 도막 두께로 화재 시 건물 붕괴를 지연시키는 내화도로 ‘화이어마스크’ ▲자동차의 메탈릭/펄 색상을 가장 유사하게 구현할 수 있는 AI기반 자동차 보수용 컬러 솔루션 ‘칼라나비 플러스’ ▲해양 생물 부착을 억제해 선박

의 연료 효율과 내구성을 높이는 친환경 선박용 방오도로 등 KCC가 개발한 주요 기술과 제품을 소개했다.

특히 KCC의 AI 기반 차세대 조색 시스템 ‘KCC Smart 2.0’은 소비자가 원하는 어떠한 색상도 현장에서 5~10분 만에 구현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 세미나에 참석한 많은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베트남은 대한민국의 약 3.3배에 달하는 면적에 전국적인 물류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조색과 색상 확인을 위해 공장과 대리점이 시편1)을 주고받아야 하는 ‘공장 조색 시스템’은 수일이 소요되는데 반해, 현장에서 바로 조색이 가능한 ‘KCC Smart 2.0’은 조색 과정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관계자들이 큰 관심을 보인 것.

실제로 KCC Smart 2.0은 올해 초 호치민, 하노이 대리점 2곳에 선제적으로 도입돼 운영되고 있으며, 현지 소비자와 대리점의 만족감을 높이

고 있다.

또한 베트남에서 건축물의 화재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자동차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KCC의 우수한 내화도로와 자동차 보수용 도로 및 조색 솔루션에 대한 관심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CC가 이처럼 베트남 현지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기술력과 제품력을 알리는 것은 치열해지는 베트남 도로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는 기회를 늘려 나가기 위함이다.

베트남 도로 총시장은 약 1조 3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높은 경제 성장률과 도시 재개발, 인프라 확충, 중산층 확대 등으로 인해 건축/인테리어/산업용 도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글로벌 도로업체 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KCC 관계자는 “동남아시아, 특히 베트남은 경제성장률, 산업화, 도시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유망 시장으로, KCC 하노이 법인과 호치민 법인은 지난 해에도 호치민과 박닌 지역에서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KCC의 기술력과 브랜드 경쟁력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동남아 전역으로의 판촉 활동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건설신문

에너지 전환 : 탄광을 태양광 발전소로 어떻게 바꾸는가



▲아페 서부 지역, 머르보 지구, 숨버르 바뚜 마을의 탄광 모습.2024.5.24.(사진=안따라/ Sylla Yulinnas)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폐쇄된 석탄광산을 개조하여 광활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한다. 이로써 친환경 에너지원의 보급을 가로막는 일반적인 장애물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8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화석 연료 및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중점을 둔 비정부기구인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GEM)는 전 세계 수백 개의 폐쇄된 노천탄광(surface coal mines)이 식량이나 주택에 필요한 토지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버려진 노천탄광은 이미 개간된 토지에 있고 전력망과 가까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생 에너지를 공급하기에 이상적이라는 것이다.

이 단체에 따르면 최근 가동을 중단한 300개 이상의 노천탄광에는 약 103GW의 태양광 발전 용량을 수용할 수 있으며, 향후 대규모 운영이 종료되면 추가로 185GW의 태양광 발전 용량을 수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 세계는 2030년까지 기존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용량의 15%에 해당하는 양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는 독일 크기의 국가에 1년 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라고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는

덧붙였다.

이러한 전망은 이론적인 것만이 아니다. 이미 일부 국가, 특히 전 세계 태양광 보급률을 선도하는 중국에서 석탄 광산에서 태양광으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이미 14GW 용량의 90개 전환이 완료되었으며, 9GW가 추가로 계획 중이다.

이러한 전환은 버려진 석탄 부지를 정화하기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와 광산 폐쇄로 타격을 입은 주변 지역 사회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 등 여러 가지 잠재적 이점을 제공한다.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는 “이는 단순한 토지 개간이 아니라 토지 복원, 청정 에너지 목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연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석탄은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공해성 화석 연료이며, 석탄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은 에너지 전환의 핵심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에는 폐광의 토지 소유권 추적을 포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잠재적 장애물이 있다. 토지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허가 및 규칙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장애물은 높은 비용일 것이다. 탄광을 태양광으로 전환하는 것은 복구가 필요 없는 태양광 부지를 개발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또한 광산 부지는 불안정하고 독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안정적인 기저부하 석탄 발전에 사용됐던 인근 전력망 인프라는 가변적인 태양광 공급을 처리하기 위해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청청 우(Cheng Cheng Wu)는 전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모델이 아직 모든 상황에서 확장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환경적으로 황폐화된 토지를 복구하면서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주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이 석탄에서 태양광으로의 용도 변경에 대한 기업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관찰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중국에서 가장 활발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지역은 과거 광산 개발로 인해 상당한 환경 비용을 치른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자산을 매각하려는 소유자, 허가 절차, 잠재적인 지역사회의 지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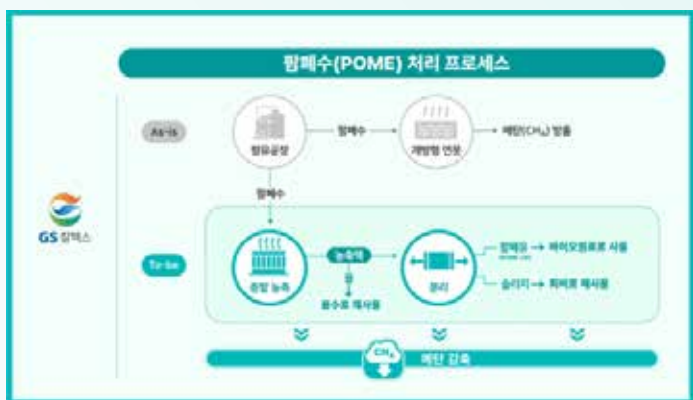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GS칼텍스, 인도네시아 팜폐수 재활용... 바이오연료 확보 추진

GS칼텍스가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에 위치한 팜유공장에서 발생하는 팜폐수(POME)를 재활용해 바이오연료를 확보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

GS칼텍스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이 추진하는 ‘2025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본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과제 업체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팜유 생산 및 수출 1위 국가로 인도네시아의 팜폐수 처리 문제는 글로벌 이슈다. 팜폐수는 보통 여러 단계의 개방형 연못을 거쳐 유기물 분해 처리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량의 메탄(CH4)이 대기로 방출된다. GS칼텍스는 인도네시아 최초로 팜폐수 증발 농축 처리 시설을 도입해 팜폐수 부패를 억제함으로써 메탄 발생을 감축시키고 팜폐수를 재활용해 팜폐유(POME Oil)를 회수할



▲팜폐수 처리 프로세스. 사진=GS칼텍스 제공

계획이다. 팜폐유는 지속가능 항공유(SAF) 등 바이오연료에 활용할 수 있다. 처리 과정에서 함께 회수되는 물과 슬러지(침전물)는 팜농장 용수와 퇴비로 재사용한다.

GS칼텍스는 6개월간 본타당성 조사를 벌여 온실가스 감축효과, 사업 경제성 등을 평가하고 긍정적 결과가 도출되면 투자규모와 시기를 판단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팜폐수 재활용 사

업 추진 시 팜폐수 증발 농축 시설 설비 1기당 연간 12만 tCO2eq2)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1395만 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에 해당된다. 온실가스 감축량은 탄소배출권으로 인정받아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NDC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팜폐수 증발 농축 처리는 기존의

메탄 포집 방식보다 수월하고 팜폐수를 발생 즉시 처리함으로써 부패를 막아 메탄 감축 효과가 크다”며 “본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팜농장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일보

2026년
카렌다 제작

021 3002 9090
0858 9060 0962
pt.kwanggaeto@gmail.com
탁상용 / 벽걸이등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인니 정부, 2025년 말까지 주택 200만 채 개보수 예정



▲서부자바 브카시 지역의 주택단지(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12월까지 전 국적으로 2백만 채의 주택을 개조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가 예산에서 43조 6천억 루피아를 배정받았다.

24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공공주택 및 정착부 파흐리 합자 차관은 브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매년 300만 채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의 일부인 이 프로그램이 이미 재무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곧 공식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목표에서 남은 100만 채의 주택은 수직형 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연간 14만 채의 주택 개보수를 목표로 했던 현재의 독립주택부양지원(BSPS)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으로, 각 가구는 수리 보조금으로 2,180만 루피아를 받게 된다.

파흐리는 이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려면 재무부, 국가개발계획청(Bappenas), 사회부, 인도네시아 군경 등 여러 부처 및 기관과 더 강력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전에 파흐리는 지역 개발자와 지역사회가 개보수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소액 대출 금융

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주택 200만 채를 개조하기로 한 결정은 브라보워 대통령의 당초 공약에서 변경된 것이다.주택부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 태스크포스를 맡고 있는 하심 조요하디 구수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약속한 연간 300만 채의 주택은 농촌 지역에 200만 채, 도심에 100만 채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모의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과 인프라의 현지 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5월 19일, 마루아라르 시라잇 공공주택 및 정착부 장관은

인프라 및 취약 지역을 감독하는 하원 제5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예산 편성 및 계획부터 실제 건설에 이르기까지 프로그램의 진전이 부족하다는 질타를 받았다. 복지정의당(PKS)의 아누아르 아리프 위보워 제5위원회 의원은 “예산도 없고 실행도 없고, 벌써 5월인데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 프로그램이 “그저 말뿐인” 공허한 약속에 지나지 않는다고까지 말했다.

한편, 이달 초에 유출된 법령 초안에서는 보조금을 받는 주택의 최소 대지 면적을 60㎡에서 25㎡로 축소하고 최소 건물 면적을 21㎡에서 18㎡로 줄이려는 해당부처의 계획이 공개됐고, 개발자 협회는 이러한 노력이 건설 비용과 도시 토지 가치 상승으로 인해 주택 가격을 더 저렴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루아라르 장관은 이 제안을 지지하며 부동산 대기업인 리뽀 그룹까지 끌어들이 이를 실현하는데 힘을 보탤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파흐리 차관과 주택 태스크포스 책임자인 하심이 이 제안을 거부하면서 마찰을 일으켰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월간 건설신문 창조 광고를 제안합니다.

월간건설신문 창조는 건설관련업체의 영업과 마케팅에 필요한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1, 개요

주요대상 : 건설관련 기업 및 자재, 장비, 기타 관련업체

2, 광고혜택

년간계약을 기본으로하며 계약시 광고디자인 무료
기업 홍보기사 전면으로소개

3, 연락처 및 문의처

021-5579-7281 (mr. kang) 0821 1122 8827
e-mail : khong3000@gmail.com

발리, 200억 달러 규모 지하철 자카르타와 협력 논의

교통체증으로 악명 높은 발리 주정부와 자카르타 주정부가 200억 달러(약 326조 루피아) 규모의 지하철(MRT) 건설 사업 협력을 논의한다. 와얀 코스터 발리 주지사와 라노 카르노 자카르타 부지사는 지난 6월 14일 발리 주도 덴파사르에서 만나 발리 MRT 사업에 자카르타의 노하우를 적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회동을 가졌다.

코스터 주지사는 회의 후 “우리는 MRT 추진을 위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며, 자카르타의 성공적인 사업 모델은 발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해외 파트너와의 협력 사례는 발리의 MRT 모델을 설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고 밝혔다.

자카르타 MRT는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와의 협업 등 다자간 파트너십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해당 경험을 발리 측에 공유했다. 라노 부지사는 “MRT는 단기간에 실현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다. 자카르타도 기획 단계에만 2년이 걸렸다”며, “발리도 외부 투자자 유치와 중앙정부, 해외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고가철 대신 지하 노선 유력 발리는 종교적·문화적 특성상 고가철도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MRT 노선은 지하터널 방식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높다. 코스터 주지사는 “일부 지역에서는 전통과 종교적 이유로 고가철도 설치가 어렵다”며, “비용과

시간이 더 들더라도 지하철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카르타 측은 이번 협력의 일환으로 기술 자문과 프로젝트 기획 단계 전반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양측은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협력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1단계 공사, 공항~째마기 구간 16km

발리 MRT 사업은 이미 초기 단계에 착수했다. 발리 주 산하 공기업 ‘사라나 발리 드위빠자(SBDJ)’는 지난해 9월, 인도텍(Indotek)을 주 시공사로 선정하고, 중국철도건설공사(CRCC), 시나르 발리 비나 카르야(Sinar Bali Bina Karya)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CRCC는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건설에 참여한 기업이다.

1단계 구간은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에서 째마기(Cemagi)까지 16km로, 주요 정차역은 꾸따 중앙주차장(Central Parkir Kuta), 스미낙(Seminyak), 브라와(Berawa)가 포함된다. 지하 30m 깊이의 터널과 표준궤(1,435mm) 복선으로 설계되며, 총 사업비는 200억 달러로 추산된다.

1단계 완공은 2028년 초로 계획되어 있으며, 전체 사업은 4단계로 구성되어 2031년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후 구간으로는 공항~짐바란(Jimbbaran), 꾸따 구간 확장, 르논(Renon)~수가와띠(Sukawati) 노선이 포함된다.

[데일리인도네시아]

KYUNGWON is writing the history of Korean air compressors
KYUNGWON Compressor is manufactured in Korea with 100% Korean Technology



KYUNGWON
COMPRESSOR

경원기계공업주식회사

한국직영점: (주)동부경원세기

TEL: +82-2-465-6308 / 3884 박용환 대표: +82-10-5345-2884
Email: dbkw2000@hanmail.net Web Site: www.dbkw2000.com

인도네시아 대리점: PT.KYUNGWON ARIM INDONESIA

공장 및 사무실: JL. Niaga Industri Blok QQ2 Nomor 11 Kawasan Industri, Jababeka Phase 2, Desa/Kelurahan Pasirsari, Kec. Cikarang Selatan, KAB. Bekasi, Provinsi Jawa Barat
TEL: +62-21-8926-1370 이갑진 매니저: +62-822-5818-8770
Email: dbkw2000@gmail.com

건설, 토목, 플랜트

- PT.HESSA

자카르타 0821 1464-1343
- POSCO E&C INDONESIA

자카르타 021 7278-4686
- PT. SEOHEE INDONESIA

자카르타 021 2991-6001
- PT. KORINDO HEAVY INDUSTRY

망그랑 021 595-0088
- 대림산업

자카르타 021 5296-1060
- 롯데건설

자카르타 021 5060-7257
- PT. POWERTECH

Engineering & Construction
자카르타 021 520-2025
- 쌍용건설

자카르타 021 5795-0377
- 두산중공업

자카르타 021 2995-0102
- 현대건설

Engineering&Construction
자카르타 021 571-3700
- 현대 중공업

자카르타 021 2945-5201
- 대우건설

자카르타 021 250-6555
- GS건설

자카르타 021 5785-3182
- SK ECO PLANT

자카르타 021 2709-4662
- SK TECH

자카르타 021 520-2025
- 삼환기업

자카르타 021 520-7439
- 삼성물산

자카르타 021 527-8182
- 현대 엔지니어링

자카르타 021 5269-4208
- PT. ALAM DUNIA ENG & CONST(ADEC)

Civil-Architecture-Electrical-Mechanical
망그랑 021 5579-8505
- 계룡건설

자카르타 0813 9809-7914
- PT. ELJINDO

토목, 일반건설, 공장증축
자카르타 021 7883-3357
- PT. SPACE TECHNOLOGY

플랜트 및 공장 설계/제작/시공/O&M
찌까랑 021 8990-2215
- PT. P&I INDONESIA

Heavy Machinery, Supplier,
Construction & Port Crane
망그랑 021 5579-3855
- PT. TUNAS DUNIA

자카르타 021 2936-3664
- PT. ACE ENGINEERING & CONSTRUCTION

Civil-Architecture-Electrical-Mechanical
IUJPLT(Solar Plant))
자카르타 021 2782-2600
- PT. SSA

EPC GENERAL CONTRACTOR
자카르타 62 812 1955 -5736
- PT. DAEAH E&C INDONESIA

건축, 토목, 플랜트
반톤 021-5574-1492
- PT. HAN JIN KONSTRUKSI INDONESIA

General Engineering & Construction
Contractor
세랑 반톤 0254 402323
- SHINHWA TECHNO PLANT

Electrical, Mechanical, Construction,
Fire Fighting Total Solution
Factory Control Consultant
찌까랑 021 8984 1283
- PT.UTAMA JAYA TEKNIK

Engineering, Construction &
Manufacture
망그랑 021 5577 4507~09
- PT. HANS JAYA UTAMA

건축, 토목, 플랜트
자카르타 021 7919-2055
- PT. WOOIL INDONESIA

플랜트, 기계, EPC
망그랑 021 5935-0229
- PT.HAECHANG DEVELOPMENT

토목(터널)
자카르타 0811 610 3042
- PT. KMU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
0813 1939 2260

인도네시아 한인 건설 및 관련 업종의 정보 디렉토리 입니다. 게재를 원하는 업체는 업체의 기초정보를 본지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다음호 부터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메일:khong3000@gmail.com, 0821 1122 8827

- INI GEO

친환경 옹벽, 사면보호, 벽면녹화
자카르타 021 581-4742
- PT. KUMYI PLANT INDONESIA

JAKARTA SELATAN
자카르타 (021) 726 9976
- PT. KUMGANG HYUNDAI INDONESIA

커튼월 및 창호 방화도어, 셔터, 자동문 각
종 판넬 공사
망그랑 021 5568 5408
- PT. KSK BANGUN KARYA

건설, 토목, 플랜트
자카르타 021 7591-2718
- PT. Muns Cipta Bangun

토목, 철골, 건축, 인테리어
망그랑 021 5541-747
- PT. BUANA INSKONSI JAYA

Waste Energy Plant, Electrical, HVAC
망그랑 021 3973-1528
- 삼성물산

자카르타 021 2988-0418

ENGINEERING

- PT.BANGUN JAYA UTAMA

Engineering & Construction
021 652-0449
- 도화 엔지니어링

자카르타 021 5140-0996
- 유신 엔지니어링

자카르타 021 526-2409
- PT. BANGUN JAYA UTAMA

Engineering & Construction
자카르타 021 652-0449
- PRATAMA JAYA

Engineering
망그랑 021 5576-8070
- PT. P-CRANETECH ENG & SERVICES

자카르타 021 5435-0412
- SAMSUNG C & T Corporation

자카르타 021 2988-0418
- 대영 엔지니어링 (DY)

자카르타 021 5794-5766
- PT. DAEKYEONG E&C

Engineering & Construction
세랑, 반톤 0254 848-7678
- PT. CNEX ENGINEERING CONSTRUCTION

Supply and Instalation,
Fire Alarm and Fire Fighting System
자카르타 021 2920-4684
- PT. JINWOO ENGINEERING

망그랑 021 597-7810
- PT. GLOBAL SUNG JUOO

General Construction & Engineering
망그랑 021 5577-2538
- PT. MULTI PERSADA

Construction & Engineering , Civil,
M&E, Treading
망그랑 021 5578-0702
- PT. PAJAR EKA YOUONE(FEY)

Engineering & Construction
망그랑 0254 781-3709
- PT. FAJAR EKA YOUONE(FEY)

Engineering & Construction
망그랑 0254 781-3709
- PT. JAYA TEKNIK KONSTRUKS(Besar/PMDN)

Engineering & Construction
반톤/세랑 021 5574-1492
- PT. VISION AND YOUNG

전기공사, 자동제어공사, 환경공사
망그랑 021 2904-7301

공단 및 지사

- 한국 수자원 공사

자카르타 021 5140-0025
- 한국 농어촌 공사

자카르타 021 7591-3414
- 국가철도공단

자카르타 021 5058-8812
- 건설공제조합

자카르타 021 5290-4042
- 산업인력공단

자카르타 021 7918-6012

월간건설신문

인도네시아 건설 및 관련업종 디렉토리

건축설계 사무소

- 정림건축종합건축사무소

자카르타 0852 1561-9583
- PT.MSP(MAKMUR SISTIMINDO PERKASA)

자카르타 021 721 0356

전기

- SHINHWA TECHNO PLANT

Electrical, Mechanical, Construction,
Fire Fighting Total Solution
Factory Control Consultant
찌까랑 021 8984 1283
- SHINHWA TECHNO PLANT

Electrical, Mechanical, Construction,
Fire Fighting Total Solution
Factory Control Consultant
찌까랑 021 8984 1283
- LS Electric (구 LS산전)

전력 수배전 해외사업부
자카르타 0212933-7614
- 정석 테크 아바디

종합전기, Electrical & Supplier
망그랑 021 5566-2989
- PT. SAMJIN INDONESIA ENC

전기, 통신, 소방공사
자카르타 0812 8293-0448
- PT. FIRDAUS INDONESIA

Mechanical, Electrical, General
Supplier & Contractor
망그랑 021 5940-2939
- PT. BNC MACHINERY INDONESIA

Electric Rebar Bending, Cutting Ma-
chines & Auto.
자카르타 021 5435-3589
- PT. YOOHAN ELECTRIC & C

Agen Cable Listrik (Eterna, Voksel &
JJ-Lapp Cable), Elektrik Equipment
망그랑 021 5574-6345
- PT. YUCOM JAYA MANDIRI

General Contractor, Mechanical
Electric, General Traiding
망그랑 021 5949-2764
- PT. UTAMA JAYA TEKNIK

Electrical, Mechanical, Civil, Design &
Engineering,
망그랑 021 5577-4507
- PT. WOJIN CONSTRUCTION

Electrical, Mechanical, Fire alarm,
자카르타 021 8991-3049

건축자재

- LS전선

까라왕 021 3973-3988
- PT.DWI MITRA ANUGRAH

에폭시, 바닥시공
021 880-3515, 0812 100-0055
- PT. BITUTEK

지붕자재 아스팔트 싱글, 방수시트 제조
찌부부르 021-2906-0202
- PT. TOILON INDONESIA

Duct Insulation, Pipe Insulation, Roof
Insulation, Bag Component, Playing
Mat, Automotive Part
망그랑 021 5940-4086
- PT.ARI TECH INDONESIA

공장수질개선, 정수시스템
0815 4655-5680
- PT. MIDAS INDONESIA

U-PVC 지붕자재
망그랑 021 5428-7777
- PT. ASIA CHEMICAL INDUSTRY

산업용 특수페인트
망그랑 021 5579-0456
- PT. MIRAN METAL INDONESIA

Produksi & Contruksi Plat Besi,
Stainless, Galvanis, V-Cutting, Tekuk
망그랑 021 596-9775
- PT. SIAN U-PVC

U-PVC System Window, ABC Door
보고르 021 8794-3838
- PT. EROM ABADI INDO

건축자재, 소모품 유통
브카시 021 8991-2061
- PT. CTS GLOBAL INDO

친환경 방음, 차음 펜스 생산
찌까랑 021 8991-2061/63
- KORIANA TOOL

Power tools, Scurity Tool, Mold Materials,
망그랑 021 5940-0081

- PT. MITRA METAL

Metal Spray, Ceramic Coating,
Tungsten Carbide, Febrication
망그랑 021 596-0522
- PT. KYUNG HEUNG INDONESIA

Sandwich Panel TM Roof & Wall, Steel
Structure & Contractor
자카르타 021 530-7244
- PT. ANEKA PANEL INDONESIA

Manufacture of Sandwich Panel
자카르타 021 797-8989
- PT. SUNWOO HOME INDONESIA

Manufacturing Stainless Steel Pipes
망그랑 021 5940-0288
- PT. TOILON INSU PANEL

Insulated Panel
망그랑 021 5579-7181
- HYUNDAI ALUMINIUM CO.,LTD

자카르타 0812-8706-7437
- PT. FAJAR EKA INDOTAMA

Steel Structure Fabricating, Piping
(FAB & Instal), Mechanical Construction,
망그랑 021 5444-393
- PT. PUTRA HANKUK

Steel Con's & Civil Engineering
자카르타 021 525-5784
- PT.DANAKORINDO JAYA

Steel
망그랑 021 5510-588
- PT. KUMGANG INTERNATIONAL

Curtain wall & Aluminum window/ Fire
door & shutter,
자카르타 021 5568 5408
- HANSHIN

컴프레사
망그랑 021 5949-4000
- PT. DONG SUNG TOOLS

공구 머신툴
찌까랑 021 8990-2723
- PT. SMART TECHTEX

Door, Windows, Plafon
자카르타 021 522-7983
- 에스와이패널

PIR, Glass wool, Rock wool, EPS패널
망그랑 021 3006-7879
- PT. WARNATAMA CEMERLANG

에폭시
망그랑 021 590-1888
- PT. PRIME CON INDONESIA

바닥코팅
망그랑 021 5316-3787
- PT. SEJIN LESTARI FURNITURE

Door, Furniture
망그랑 021 591-8496
- PT.NEWSUN

안전화
망그랑 021 2901-7310
- PT. DOLSEOK INDONESIA

지붕재, 방수시트
망그랑 021 2259-7930
- PT. HYDRO JOTALINDO PERKASA

Master Dealer Lampung Sand
Blasting & Painting Applicator
람뵙 0721 780 151, 0721 781 457
- PT. KCC INDONESIA

페인트
자카르타 021 3002-7184
- PT. HFAl

바닥 페인트, 에폭시
망그랑 021 551-5218
- PT. KCCI CHEMTECH INDONESIA

에폭시 바닥재, 접착제
즈빠라 0291 751-2706
- PT. LEBIH BAGUS

친환경 가설
자카르타 0821 1331 3430
- CV.TROPIKA PERKASA

각종가구 / 건축용 합판
버까시 0811 1929 350
- PT. Lineone indonesia

Scaffolding Fabrication
망그랑 021 5574 1492
- PT. TOPSCO STEEL UTAMA

KRAKATAU POSCO 후판공급
필레곤 0813 8039 7748
- PT. KTC MITRA INDONESIA

U-PVC, 알루미늄도어, 창문, 하이샤시
보고르 021 8792-9422
- NEXTIN

LED, Special Lighting
자카르타 021 3104-414

- PT.indobaja

방화문제작, 철재절단, 절곡
망그랑반톤 021 5935 5882
- ECO INTERNATIONAL

맨홀뚜껑 & 그레이츠
0815 8989 667
- PT. IMGLOBAL [PAPERYARN]

건축자재, LVR, DECO, DELUXE TILE
자카르타 021 2247-6211
- PT. LINEONE INDONESIA

가설건축자재, Scaffolding, Field
installation/dismantling
반톤/세랑 0215574-1492
- PT. CKP ABADI

건축자재,페인트
브까시 021 8278-2456

설비

- PT. TOPINDO TEKNIK ABADI

General Contractor
자카르타 021 7918-1917
- PT. HYUNDAI ELEVATOR INDONESIA

Maintanence & Repair, Spare Parts
자카르타 021 631-8444
- PT. GEOSUNG SYSTEM INDONESIA

Multizone Aircondisioner Clean room plane,
HVAC Thermo-Hygrostat, Maintenance
필레곤 025 434-0319
- KUMSUNG INDONESIA

Agen Samho Boiler
자카르타 031 664-1641
- PT. MIURA INDONESIA

Best Partner for Energy, Water,
자카르타 021 2902-2342
- PT. KOREA FIBLON

Lighting Innovation
자카르타 021 4280-1604
- WOORIZEN INDONESIA

The Energy Saving Solution
자카르타 021 386-2228
- PT.GEUM CHEON INDO

판금가공
망그랑 021 5940-2454
- PT. JM EKA PERSADA

대차, 바퀴, 팔렛, 토레이
망그랑 021 558-6446
- PT. TOP ABADI

팔렛 작업대, 대차
찌까랑 021 8990-2241
- PT. HYUNDAI FACADE ALUMINIUM INDONESIA

망그랑 021 2901-5282
- PT. ECO international

맨홀(Manhole),그리스트랩
자카르타 021 2782-8878
- PT. SUNG HWA PLUS

Total Fire Protection Solutions
자카르타 021 4064-2114
- PT.OK ELEVATOR INDONESIA

ELEVATOR
자카르타 0852 1778 9098
- PT.MJ indotech

공조설비, 소방설비, 건설안전자재
기계설비,
자카르타 0812 1234 9080
- PT.KIMS PIPING INDONESIA

플랜트, 배관자재 전문
필레곤 0254 781 8901

인테리어

- HDG

Interior, Branding, Construction
자카르타 021 7205-007
- 채울디자인

Design & Build
자카르타 021 8946 9398
- PT.WELLZ-IN(웰즈인)

Interior Furnitur & Architecture
자카르타 021 2912-4010
- PT.DESIGN ACE

Creative Design, Interior, Architecture,
Furniture, Sign
자카르타 021 7590-8858
- PT.DECOREE INTERNATIONAL

Interior, Architecture, Creative Design
자카르타 021 8066-7038
- INI GALLERY

INTERIOR & FURNITURE
자카르타 021 581-4742
- PT.DUNIA INDAH MAKMUR

K-Wallpaper & Wood Vinyl Flooring
찌부부르 021 8431-0753
- PT. EOK ECO INDONESIA

인도어, 아웃도어, 인테리어
자카르타 021 7919-2426

PT. INDKOR
Interior & Total Solution
짜부부르 021 8430-7773

PT. KES INDONESIA
Interior & Exhibition
땅그랑 021 558-2105

LIVING A&I
Architecure & Interior
자카르타 021 7278-0704

YOU & YOU INTERIOR
021 719-1285

포워딩

F1 LOGIX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자카르타 021 797 6237

ABADI TRANS LOGISTIC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자카르타 021-4683 6025

PT. ACE MULTITRANS CARGO
International Air and Seafreight Forwarder
자카르타 021 2260 4233

PT. DUNIA TRANSPORTASI LOGISTIK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자카르타 021 4287-0098

(주)소리항공
PT.BINTANG JAYA TRANS
자카르타 0851 0046 3552

PT. WIRAWAN KAWAN SEJAHTERA (WIKASA)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자카르타 021 8379-1935

PT. CAHAYA INDAH LOGISTIC
As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자카르타 021 2751-3783

PT. HANINDO EXPRESS UTAMA
건설장비 운송
자카르타 021 252-5123

KAS EXPRESS
자카르타 021 2938-2773

KPL
자카르타 021 422-9282

PT.EAST GLOBAL LOGIX
자카르타 021 8063-0760

PT.KCTC INTERNATIONAL LOGIX
자카르타 021 797-5959

PT.PENASCOP LOGISTIK TRANSNIAGE
항공/해상, 수출입통관
자카르타 021 2867-3944

PT.LogisALL Global Indonesia
자카르타 021 8066-7220

PT.JUST IN TIME
자카르타 0813 1030-4644

PT. Pertama Logistic Service
땅그랑 021 558-6446

PT. KORNET LOGISTICS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항공/해상 수출입 통관
자카르타 021 4587-7350

PT.GLOBAL CHEM INTERNATIONAL
LOGISTIC & TRADING
짜까랑 021 2956 3356/57

ITL
INTERNASIONAL TOTAL SERVICE & LOGISTICS
자카르타 021 5011 2120

PT.KGL INDONESIA
자카르타 021 2956 3356/57

PT.Blueray Indonesia Indonesia
Door To Door 물류회사
자카르타 왓츠앱 +82 10 5259 0757

중 장비, 기계

현대건설기계
중장비
자카르타 021 5290 1493

KOTRACK
중장비
자카르타 82 10 8732-2928

PT.SUMA SUKSES SEJAHTERA
자카르타 021 522-2241

DAEWON CRANE GLOBAL
땅그랑 0812-1200-3344

PT. HD FORKLIFT INDONESIA
자카르타 021 2961-6497

반도 크레인
크레인 호이스트
자카르타 021 3002-7804

PT.CNB MACHINERY INDONESIA
건설관련 기계판매
땅그랑 021 5572-1090

컨설팅

OK 컨설팅
인허가, 비자, 세무, 부동산
자카르타 0852 8185-5551

두왕 컨설팅
법인설립, 기업법률자문 전문
자카르타 021 2941-1043 (ext 102)

WINNERS CONSULTING
키타스, 법인설립,
자카르타 021 5012-3277

반석 컨설팅
세무회계, 법인설립,
자카르타 021 7918-9193

PT. GAON INDO JAYA
키타스, 법인설립
땅그랑 021 5579-4626

PT. BNG CONSULTING
세무, 회계
자카르타 021 522-2739~40

한국 컨설팅
PT. GLOBAL CENTER
땅그랑 021 5577-6454

PT. JOO CONSULTANT
세무, 회계
땅그랑 021 558-1616

WOORI CONSULTING
키타스, 법인설립
자카르타 021 7918-4264

BNC CONSULTING
법인설립 및 키타스 진행
021 2912-6495/6

PERMATA FORTUNE INDONESIA
법인설립 및 키타스 진행
021 799-6182

통신, CC TV, 보안

PT. KINEZ
인터넷, 통신, CCTV
땅그랑, 짜까랑, 브카시, 스마랑, 자카르타, 보고르외
021 3002 9000

PT. GLOBAL SUMBER JAYA
CCTV/PABX/Access Control/
자카르타 021 7251-606

PT. D&B NETWORK
자카르타 021 2938-5398

컴퓨터 원
CCTV, Computer
땅그랑 021 5579-6399

HANSTAR
인터넷 CC TV
자카르타 021 2906-7229

건물관리, 용역

ECONE
건물관리, 용역, 방역, 살균,
자카르타 081 1111 8057

인력관리, 용역

PT.AGUNG SINAR BUNGKUK
인력파견 관리, 경비, 생산직, 사무직등
자카르타 021 8952 7463

PT.Cahaya Research Indonesia
관리직 인력 헤드헌팅, 사무직 물류 소
매인력 파견, IT
자카르타 0813 1509 9567

재인니 한국 건설협회
가입 및 문의

박건우 부회장
(0815 1902 4123)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수라바야 연장에 민간 투자자들 관심

인도네시아 교통부에 따르면 몇몇 민간 투자자들이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HSR) 우쉬(Whoosh)를 동부자바 수라바야까지 연장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다.

교통부 차관 순파나는 지난 11일 국제 인프라 컨퍼런스(ICI)에서, 현재 타당성 조사를 평가하고 있으며 자바 섬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노선이 북부 경로를 따를지, 남부 경로를 따를지 여러 노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잠재적 투자자의 수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자카르타-반둥 노선의 고속철도 우쉬(Whoosh)는 2023년 10월에 운영을 시작했고, 수라바야까지 노선 연장 계획은 몇년 전부터 계속 논의되어 왔다.

이 프로젝트는 교통부령 제296/2020호에 명시된 국가철도 마스터 플랜의 일부로, 이 계획이 실현되면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두 도시인 자카르타와 수라바야 간 이동시간이 기차로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될 것이다.

분석가들은 우쉬를 수라바야까지 확장하는 것이 승객 수를 늘리고 서비스의 수익성을



▲자카르타-반둥 고속열차 우쉬(Whoosh)가 서부 자바의 브카시 시를 통과하고 있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높이는 데 핵심이라고 주장하지만, 프로젝트에 또 다른 비용이 필요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자금 조달이 여전히 큰 장애물로 남아 있다.

동남아시아 최초의 고속철도인 자카르타-반둥 노선은 73억 달러의 건설 비용이 소요됐다.

이로인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영기업(BUMN)은 2017년에 45억 5천만 달러의 부채와 2023년 비용 초과분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로 5억 6천만 달러의 대출을 받아야 했다.

국가경제위원회(DEN) 루훗 뽀자이판 의장은 이전에 수라바야까지 우쉬 연장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이를 뒷

받침할 대통령령(Perpres)이 아직 준비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지만 규제 프레임워크가 확정되면 중국과의 공동 타당성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지난 5월22일 베이징에서 말했다.

루훗은 토마스 지원도노 재무부 차관에게 대통령 규정(Perpres) 제정을 감독하는 임무를 맡겼다.

루훗은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 행정부에서 해양투자조정장관을 역임하며 우쉬 프로젝트의 핵심 후원자였는데, 비평가들은 이 프로젝트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루훗은 자카르타-반둥 고속철 건설에 자신도 그 일에 관여했기 때문에 실수로부터 배우고 있다며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같은 컨퍼런스에서 인프라 및 지역 개발부 아구스 하리무르띠 유도요노 장관은 정부가 아직 연장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고, 교통부 두디 뿌르와간디 장관은 이 프로젝트가 국가 예산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PT. HANINDO EXPRESS UTAMA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한결같은 안전운송을 자랑하는 프로젝트 물류 전문업체 (Since 1993)

업무안내

- 수출입 화물 통관 및 해상, 항공 운송
- 프로젝트 특별허가 최근 수행 (PIBB, MASTER LIST, SKB PPN)
- 프로젝트 카고 및 건설 장비 운송
- 특수 장비 국내외 운송 및 통관 (중고장비 포함)
- LCT/BARGE TRANSPORTATION

중요수행
프로젝트

- Lotte Chemical LINE Project
- Grati CCPP Power Plant Project
- Rajamandala Hydroelectric Power Plant Project
- INAS Asahimas Chemical Project
- Suban (Phase 1&2) Gas Project

주 소 : Granadi Building 7th Floor South Wing, Jl.H.R Rasuna Said
Kav. 8-9 Kuningan Jakarta 12950 - INDONESIA
이 메 일 : project@hanindo.net 홈페이지 : www.hanindoexpress.com
전 화 : +62-21-2525-123 (Hunting) Fax : +62-21-2520-551/556
HP : +62-81-848-5570 (Mr. Cho) Hp : +62-811-816-0627 (Mr. Shin)



HD현대건설기계, 인도네시아 광산기업과 손잡고 시장 공략 강화

인도네시아 하스누르 그룹과 마이닝 솔루션 공동 개발, 전략적 MOU
광산 장비 공급·운영 시스템 개발 등 상호 협력... 전동화 생태계 구축까지
인도네시아 광산 시장 발판 삼아... 글로벌 마이닝 시장에서 입지 확대 나설 것

HD현대건설기계가 인도네시아 광산 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 광산기업과 손잡고 마이닝 솔루션 개발에 나선다.

HD현대건설기계는 19일(목) 울산 캠퍼스에서 인도네시아 주요 광산 기업인 하스누르 그룹(Hasnur Group)과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HD현대건설기계 최철곤 사장과 하스누르 그룹 자안티 사리(Jayanti Sari) 사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광산 장비 공급 △토탈 마이닝 솔루션 개발 △전기 굴착기 개발 △사이트 매니지먼트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며, 최적화된 광산 운영을 위한 솔루션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하스누르 그룹은 HD현대건설기계로부터 장비를 공급받고 운영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장비 효율 향상을 위한 솔루션 개발에 협력한다.

HD현대건설기계는 대형 휠로더 공급을 시작으로 하스누르 그룹에 광산용 건설 장비를 단계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축적된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산 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 장비 공급과 유지보수, 사이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아우르는 '토탈 마이닝 솔루션'도 개발한다.

특히 하스누르 그룹이 운영하는 광산을 통해 전기 굴착기 등 전동화 장비에 대한 실증 테스트도 함께 진행하며, 이를 통해 기술

고도화와 전동화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수준의 니켈 매장량과 생산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석과 코발트 등 다양한 전략 광물 자원을 기반으로 광산 장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6W리서치(6Wresearch)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광산 장비 시장은 2025년 약 25억달러(원화 약 3.4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2031년까지 연평균 8.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HD현대건설기계는 이번 협업을 통해 인도네시아 광산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광산 장비 시장에서의 입지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HD현대건설기계 최철곤 사장은

“이번 협업은 단순한 장비 공급을 넘어, 광산 현장 운영 솔루션과 전동화 생태계 구축 역량을 확보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광산

시장에서 디지털 기반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HD현대건설기계는 광산 시장 공략을 위해 암석 파쇄용 락리퍼(Rock Ripper)를 장착한 굴착기와 석재 운반용 포크 어태치먼트를 적용한 휠로더를 출시했으며, 140톤급 초대형 굴착기 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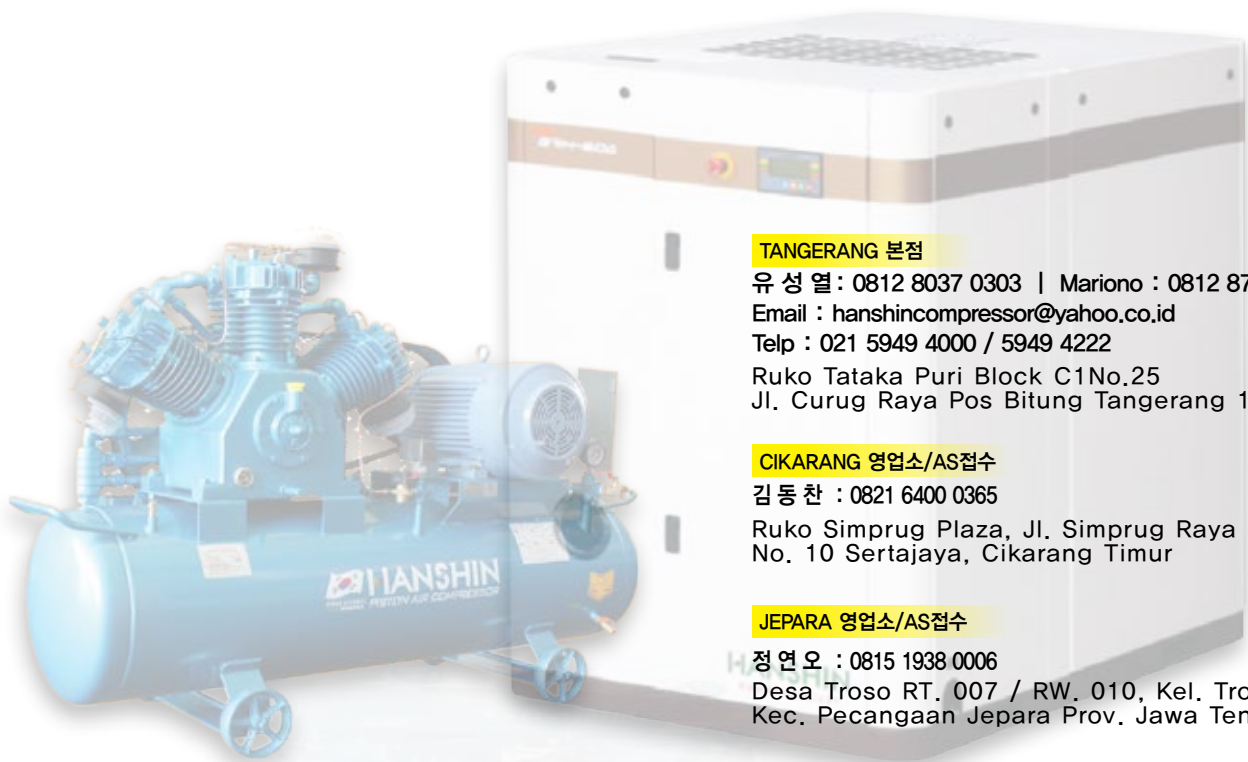
[뉴스와이어]



▲HD현대건설기계 100톤급 초대형 굴착기

HANSHIN

에어 콤프레셔



TANGERANG 본점

유 성 열 : 0812 8037 0303 | Mariono : 0812 8763 965
Email : hanshincompressor@yahoo.co.id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CIKARANG 영업소/AS접수

김 동 찬 : 0821 6400 0365
Ruko Simprug Plaza, Jl. Simprug Raya Blok B2
No. 10 Sertajaya, Cikarang Timur

JEPARA 영업소/AS접수

정 연 오 : 0815 1938 0006
Desa Troso RT. 007 / RW. 010, Kel. Troso
Kec. Pecangaan Jepara Prov. Jawa Tengah